

#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연장서 역전골... 금호고 기적같은 우승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울산 현대고에 2-1 역전승

최수용 감독, 최우수지도자상  
MVP 허을... 골키퍼상 신승훈

광주 금호고가 극적인 역전극으로 2019 전국고 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첫 우승과 시즌 2관왕을 이뤘다.

금호고는 27일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고와의 2019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제74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 결승에서 연장 승부 끝에 2-1 승리를 거뒀다.

지난 8월 열린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금호고는 기세를 몰아 왕중왕전 트로피까지 들어 올렸다.

짜릿한 역전극이자 기다렸던 설욕전이었다.

금호고는 0-1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이세한의 '극장골'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연장 시작 4분 만에 터진 송주민의 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연장 후반 7분에는 골키퍼 신승훈의 슈퍼세 이트를 묶어 우승을 확정했다.

금호고는 이 승리로 2년 전 패배를 갚아줬다. 2017년 하반기 왕중왕전 결승에서도 현대고를 상대로했던 금호고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금호고는 현대고의 거센 공세 속에 0-0으로 전 반전을 마감했다.

후반 10분 허을의 왼발 슈팅이 금호고의 반격을 알렸다. 후반 15분 김화중의 슈팅도 이어졌지만 세밀함이 떨어졌다.

그러자 현대고가 김도훈을 앞세워 반격을 나섰다. 후반 20분 매서운 왼발 슈팅을 날린 김도훈은 3분 뒤에는 저돌적인 돌파로 오른쪽 측면을 뚫고 윤경원에게 좋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어 금호고 이세한에 시선이 쏠렸다. 후반 31분 이세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금호고가 땅을 쳤다. 4분 뒤 이세한이 이번에는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를 지나쳤다.

그리고 후반 40분 금호고에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

현대고의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 신승훈이 공을 쳐 내기 위해 달려 나왔지만 최석현의 헤더가 이어졌다.

공은 골대 안에 있던 수비수 정현택의 머리에 맞고 튀어나왔지만, 주심이 '골라인을 넘었다'고 판정하면서 현대고의 득점이 기록됐다.

동점골을 향한 금호고의 몇 차례 공격이 무위로 끝났다. 5분간의 추가시간도 다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금호고의 패배가 기록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골대에 울었던 이세한이 '극장골'의 주인공이 되어 포효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송주민의 등을 맞은 공이 이세한의 앞에 떨어졌다. 이세한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골대를 겨냥하면서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이



27일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고와의 2019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에서 승리를 거둔 금호고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됐다. 분위기를 탄 금호고는 연장 4분 만에 두 번째 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오른쪽에서 쇄도한 허을의 패스를 받은 송주민이 현대고의 골대를 뚫으면서 역전골을 만들었다. 연장 후반 7분 현대고 윤경원이 김승환이 머리

로 뚫은 공을 잡아 매서운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신승훈이 좋은 수비로 공을 막으면서 팀 승리를 지켰다.

최수용 감독은 "이번 대회는 오로지 투지와 근성, 실력으로 일궈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고, 칭찬해주고 싶다"며

"2년 전 왕중왕전 결승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어 더욱 값진 우승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독심 있는 승부로 우승을 이룬 최수용 감독은 대회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최우수선수상은 허을에게 돌아갔고, 골키퍼상은 신승훈의 차지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사랑이 꽃피는 KIA

윤해진 코치·고영창·백용환 결혼



백용환 예비부부



고영창 예비부부

KIA타이거즈 선수와 코치들이 잇따라 결혼식을 올린다.

올시즌 투수조 조장으로 맹활약한 고영창이 먼저 '새신랑'이 된다. 고영창은 12월 7일 오후 12시 광주 서구 웨딩그림 위더스 5층 열린홀에서 신부 송지수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고영창은 3년 전 배드민턴 코트에서 만난 초등교사 송씨에게 첫눈에 반해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광주에 신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포수 백용환은 12월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더컨벤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신부 박민정씨와 화촉을 밝힌다.

백용환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헤어디자이너 박씨를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두 사람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올 시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윤해진 코치는 12월 15일 오전 11시 부산 부산진구 헤리움웨딩홀 E동 2층 단독홀에서 이해림 씨와 부부 인연을 맺는다.

'마무리 캠프 주장' 유인상은 내년 1월 5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박혜민씨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한편 KIA에서 이적한 SK포수 이흥구도 12월 7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 보타니파크웨딩 카라홀에서 김혜선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새신랑' 대열에 합류한다. /김여울 기자 wool@

## 손흥민, 토트넘 16강 진출 '신 스틸러'

챔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플타임 출전...역전골 도움 기록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토트넘, 6차전 상관없이 조 2위

손흥민(27·토트넘)이 최근 잇따라 팀 승리에 기여하며 유럽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흥민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 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B조 5차전 홈 경기에서 플타임으로 출전해 팀을 승리로 이끈 역전골 어시스트까지 해냈다.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부임 이후 첫 경기인 23일 웨스트햄전을 잇는 2연속 플타임 출전으로, 무리뉴 감독의 손흥민에 대한 신뢰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의 신뢰에 손흥민은 좋은 플레이로 화답했다. 웨스트햄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활약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0-2로 패색이 드리워진 경기 분위기를 뒤집는 값진 역전골에 도움을 줬다. 이번 시즌 6호, 챔피언스리그 2호 도움 골이다.

토트넘은 이날 해리 케인을 선두로 4-2-3-1 전술을 폈다. 손흥민은 왼쪽 날개로 출전했다.

토트넘은 전반 6분 올림피아코스 공격수 유세프 엘 아라비에게 허무하게 선제골을 내주며 경기를 시작했다.

전반 19분 올림피아코스의 낮은 크로스를 후방 세메두가 마무리해 제2 골을 넣었고, 토트넘은 경기 시작 20분도 안 돼 0-2로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 추가시간부터 후반전까지 4골을 몰아넣으며 대역전극을 펼쳤다. 전반 추가 시간 델리 알리가 추격골을 넣어 간신히 1골을 추가한 토트넘은 후반 5분 페넬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루카스 모라의 크로스를 해리 케인이 오른쪽으로 쏘아 넣어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28분 손흥민의 활약으로 기다렸던 역전골이 터졌다. 페넬티 지역 왼쪽에서 델리 알리가 올린 공을 손흥민이 헤더로 방향을 전환, 수비수가 없는 위치에 선 세르주 오리에에게 연결했다. 오리에는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꿰뚫었다.

토트넘은 후반 32분 에릭센의 프리킥을 케인이 헤더로 쏘아넣으며 썬더볼까지 쳤다.

이번 경기로 손흥민은 시즌 전체 16개(프리미어리그 4골 4도움, 챔피언스리그 5골 2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다. 에버턴전,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전, 셰필드전, 웨스트햄전에 이어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획득했다.

한편 3승 1무 1패의 성적을 기록한 토트넘은 승점



손흥민이 26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 수비수 오마르 엘라델라위와 볼을 다투고 있다. 이날 토트넘은 4-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10점을 획득, 바이에른 뮌헨(5승 승점 15)을 잇는 조별리그 B조 2위로 안착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6차전에서 패배하더라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

는 성적이다. 츠르베나 즈베즈다(1승 4패 승점 3)와 올림피아코스(1무 4패 승점 1)는 탈락이 확정됐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격돌하는 조별리그 6차전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